

보도 일시	2023. 2. 13.(월) 16:30	배포 일시	2023. 2. 13.(월) 16:3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책임자	과장 김미라 (044-203-2731)
		담당자	사무관 박용완 (044-203-2738)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최상호 씨 임명


- 오랜 현장 경험과 전문성으로 단체의 예술성과 국제적 위상 강화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월 13일(월),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최상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 교수(1962년생)를 임명했다. 신임 단장의 임기는 2023년 2월 13일부터 2026년 2월 12일까지 3년이다.

최상호 신임 단장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거쳐 독일 카를스루에 음악대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1990년부터 2002년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오더 극장(클라이스트 극장), 카셀 국립극장, 라이프치히 오페라극장에서 전속 솔리스트로 활동했다. 세계 오페라의 중심지인 독일의 오페라극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그는 2000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 교수로 임용된 이후 23년간 음악원 부원장, 교학처장, 성악과장 등을 지내며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 우수 오페라 무대에서 우리 성악가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성악 강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한민국 오페라 발전을 견인하는 구심점은 창작 오페라 등 다양한 오페라를 제작하고 인재 양성, 국제교류 등을 추진하는 국립오페라단이다.”라며, “신임 단장은 세계적 오페라 무대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신진 음악인을 양성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오페라단의 예술적 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신임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 주요 약력

	성 명	최 상 호
	현 직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 교수
	출 생	1962년 생
	성 별	남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학사('88) • 독일 카를스루에 음악대학 대학원 석사('90)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프랑크푸르트-오더 극장(클라이스트 극장) 전속 솔리스트('90~'91) • 독일 카셀 국립극장 전속 솔리스트('91~'95) • 독일 라이프치히 오페라극장 전속 솔리스트('95~'02)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 교수 ('00~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원 부원장('06~'10), 교학처장('12-'14), 음악원 성악과장('15~) • 일본 시즈오카 국제 오페라 콩쿠르 심사위원 	